

“불교에도 산타클로스 있어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10대와 통하는 불교'



불교계는 현재 청소년 불자 감소로 그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다. 젊은 불자들이 없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당은 좀처럼 넓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소통의 부재다. 불교는 소통이다. 몸과 마음, 사람과 사람,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연구이며 불교의 핵심이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방법의 눈높이가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 불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과 설명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불교관련 책들이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내용이었던 <10대와 통하는 불교>는 바로 청소년의 눈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학생 때 해인사 백련암에서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에게 '일각'(一角)이란 법명을 받으며 불교와의 인연을 시작한 저자 강호진 씨는 성철 스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어린 청년 불자의 감성을 이 책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책은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난 사람, 세기의 라이벌 원호 vs 의상, 달마라 라마, 환생하는 사람들 등 불교와 관련된 14가지 주제와 16가지 질문을 통해 불교의 기원, 불교문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각 단락의 말미에는 저자가 불교를 접하며 느꼈을 법한 질문들이 모여 있다.

“불교에도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가 있나요?” “스님들은 왜 고기를 먹지 않아요?” “불교신자들도 일요일마다 절에 가야 하나요?” 등등 불교와 관련해 듣거나 절에서 스님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본문 중에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 간 남자’라는 부분이 있다.

저자는 거짓말을 많이 한 어머니가 지옥 중에서도

장 고통스런 대아비지옥(大阿鼻地獄)에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에게 간청해 석장과 가사, 발우를 받아 지옥문을 깨고 어머니를 만났다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꺼낸다.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너무 죄가 많아서 구출할 수 없음을 알고도 석가모니가 알려준 대로 각종 공덕을 베풀어서 어머니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목련존자의 효심입니다.”

이처럼 책이 나뉜 14가지 주제의 이면에는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배워야 할 삶의 철학이 불교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대와 통하는 불교>는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양도서라 불릴 만하다.

실상사 도법 스님은 책 시작에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불교를 궁금해 하는 어른들도 술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듯하다’며 추천했다.

10대와 통하는 불교 | 강호진 지음 | 철수와영희 펴냄 | 1만 2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못말리는 홍서원 스님들의 행복가꾸기

정봉 스님 법문 팔정도에 맞춰 새 구성



2002년부터 지리산 작은 마을인 맥전마을에 토담굴인 홍서원을 짓고 수행하는 세 스님이 있었다. 정봉 스님, 천진 스님, 현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스님들은 날마다 새벽 2시30분에 일어나 예불하고 산세, 나무, 꽃, 바람과 어울리면서 곤충만 마라도 죽이지 않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런 스님들의 삶이 담긴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 이야기>가 2009년 6월 출간되며 많은 이들이 지리산 홍서원을 찾게 된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행복 이야기>는 당시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 이야기>를 읽고 지리산 홍서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풀어놓은 가지각색의 사연과 그에 맞는 법문을 모은 것이다.

법문은 정봉 스님이 설한 것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의 것을 천진, 현현 스님이 사서제와 팔정도에 맞춰 새롭게 구성했다.

“기도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직 죽음과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붙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세상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죠. 대학은 실력대로 가는 것이 맞지. 기도 한다고 다 대학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 같이 구걸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99p)

스님들은 이 책을 통해서 물질적 떠나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책의 표지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려있는 사진에는 하루 한끼만 먹으며 계율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녹아 있다.

‘누구 없느냐고 묻지 말고 사람을 키워라’ 같은 장에는 조계종단의 여러 스님들을 향한 쓴소리도 담았다.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행복이야기 | 천진, 현현 엮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 2800원

노덕현 기자



커피 한 잔에 담긴 깨침 대화체로 풀어

성재현 소설 '커피와 달마' 현대인이 만나는 수행의 길



“내 이제 가면 자네가 사다 주던 커피가 그리워서 어쩌. 커피를 달여 주는 집에 가든 내 말 좀 꼭 전해 주게. 이 늙은 중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맛보여 줬으니 성불할 거라고 말일세”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이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는 계기는 어느 순간 불시에 찾아오곤 한다. 이 책은 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를 부정하면 주인공이 달마의 노스님을 통해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경양년에 빠진 회사 사장으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커피를 마시던 주인공은 우연히 찾은 조용한 산자락의 달마암에서 스님을 통해 불교를 접한다.

“불멸하는 영혼도, 보다 나은 내세도 기약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교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인공의 질문에 대해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야”라고 답하며 불교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커피와 달마>의 재미는 주인공이 변화하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독

자들이 주인공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현대인이란 누구나 겪고 있는 번민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우리에게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물질적 풍요가 참된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아찔한 속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사람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잠시라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자네는 행복하지 못하겠거든. 언제쯤 자네 뜻대로 모든 일들이 굴러가고, 남들보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겠는가?”

책 속에서 달마암 노스님이 주인공에게 던진 질문은 마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건넨 말 같다. 우리는 어쩌면 물질적 풍요란 거짓된 행복 속에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책의 후미에 제시된다. 스님은 주인공에게 참선을 알려주고, 주인공은 월야정진도 불사한다. 하지만 스님은 비바람을 맞으며 높은 바위에 앉아 버티고, 일부러 차가운 물속이나 피아발 아래

에서 참선을 하며 버티는 행위는 관심을 끌기 위한 서커스일 뿐 그 본질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어 부처님도 고행은 무익한 행동임을 깨닫고 배격하셨다며 참선의 본질에 대해 친절히 얘기해 준다.

스님은 주인공에게 선에 대해 물어본다. “즐거운 여행이요” 주인공의 대답에 스님은 “1박 2일 좌선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거웠나?”고 물어보며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잠을 자라고 한다. 스님은 어떤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선의 전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한다.

“좌선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좌선을 통해 비로소 그 것을 감지하게 되지, 자네는 상념에서 해방되는 첫 걸음을 댄 거야.”

사람들은 참선을 단순히 스님들과 같은 수도자들이 득도를 위해 행하는 특별한 행위로 오해하곤 한다. 그렇기에 ‘무아지경’ ‘무념무상’ 등 수식어에 집착하고, 결국 실천해 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 책은 스님이 커피를 마시고, 일반인들이 참선을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며 참선이란 새로운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커피와 달마 | 성재현 지음 | 한결출판 펴냄 | 1만 2000원

노덕현 기자

'삼국유사' 산실 인각사의 어제와 오늘

이종문 교수의 인각사 답사기

군위 인각사는 <삼국유사>가 태어난 곳이다. 고려 후기 고승 일연 스님(1206~1289)은 풍수상 기린의 팔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해 이름 붙여진 이 절에서 생애 마지막 5년을 머물며 <삼국유사>를 완성했다.

신라시대 지방 사찰로는 유례없는 큰 규모였던 인각사는 조선시대로 접어들며 쇠미했고, 특히 일진왜란을 거치며 방화로 소실됐다. 지금의 인각사는 전각다운 전각조차 없는 작은 사찰에 불과하지만 민족의 고전을 낳은 성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종문 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가 쓴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은 인각사 답사기다. 인각사에는 여

러 사연이 담긴 일연의 비석과 부도가 남아 있으며, 해마다 '삼국유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인각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그 진면모를 본격적으로 파헤친다.

볼 것 하나 없는 이 절을 이 교수는 35년 동안 100번 넘게 찾았다. 고고시절부터 <삼국유사>에 빠져든 그는 인각사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가슴이 아파, 가고 또 갔다고 한다. 인각사 창건부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원 이야기까지 두루 담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인각사에 대한 애정의 눈길을 따라 부근 비랑인 학소대부터 돌부처, 비각에 파손된 채 간혀있는 인각사비, 일연 스님의 부도 등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인각사, 삼국유사의 탄생 | 이종문 지음 | 글항아리 펴냄 | 1만9800원

노덕현 기자

생명 에너지를 글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오전월요일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100대 한정판매**
대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중 1500×82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원

연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재 기둥 : 110×90×350mm 도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구산업
www.bangaro.com / bangaro.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광역호

전국대리점모집

주얼드림은(銀)의 모든 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도도 하고 건강체크도 해보고 일석삼조의 행복을...

JD152 - 25,000원
JD155 - 25,000원
JD169 - 25,000원

JD121-1(6.4mm) 68,200원
JD162 65,000원
JD118 (10~10.5mm) 92,400원

구슬크기 : 16mm, 14mm, 12mm, 10mm, 8mm, 7mm, 6mm, 5mm, 3mm
(다양한 크기가 준비되었습니다.)

※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드북)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각지역 대리판매점,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교수의 보장)
· 사찰내 판매점 환영합니다. (샘물 제공할 수 있음)

주얼드림 (석도) · 분사 공장 및 영업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0-9490
011-441-9495 www.silverdew.com

건강 대선스님 인가제자 **대인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법을 드날린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인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